

‘광기’의 정치에서 ‘이성’의 정치로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펴낸 이진우 교수

이진우 교수는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에서 ‘광기의 정치’를 넘어 ‘이성의 정치’를 철학적으로 모색한다. 그가 주장하는 이성정치는 국민을 위한 ‘책임의 투쟁’이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성정치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다.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결합한 공생주의로 수렴된다.

이진우 교수(44, 계명대 철학과)가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한길사)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 1993년 발표한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탈현대의 사회철학》을 잇는 저작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정치문화 현실에서 출발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정치 복원을 위한 이념적 기획

이교수가 보기에 이 땅의 정치문화는 한마디로 ‘광기의 정치’다. 공익과 공동선의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모리배정치가 판친다.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자신에만 미쳐 있다.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를 외치며 남을 밀치고 달려간다.

그렇다면 이런 광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바로 ‘유교적 연고주의’다. 이교수는 의리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로 탈바꿈해 기득권 세력의 유지와 확장수단으로 이용되고, 배타적 권력구조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독점, 그리고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의 제목인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는 이런 정치실증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이념적 기획이다.

“이성정치의 핵심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의 복원입니다. 공적 정책을 결정하고 진리를 실천

하는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이 증대하면 책임도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따른 책임의식이 부재한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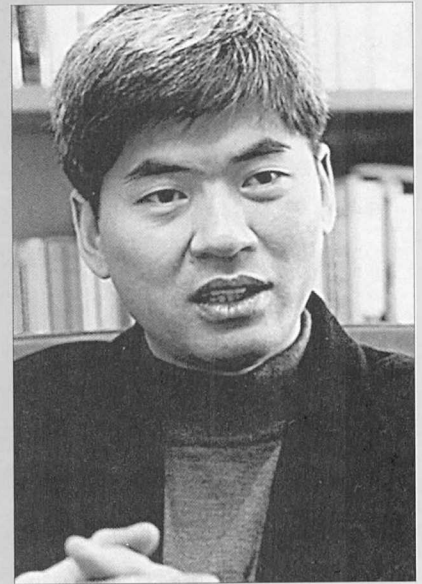
이성정치는 ‘권력정치’와 대립된다. 권력정치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이성정치는 정치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이성정치는 ‘책임을 위한 투쟁’이다.

“또한 이성정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개인적 능력과 자의에 지배되는 정치는 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시민들이 이성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쟁

또 하나 이성정치의 구성요소는 집중에서 분산으로 나아가는 정치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화다. 정치와 권력, 문화의 중앙집중은 시민의 다원적인 욕구와 의사를 말할한다. 권력분산을 통한 권력의 통제와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정치를 지역화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이성정치가 구체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는 타자의 자유와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문화는 민주



이진우 교수

주의적이며 민주주의는 거꾸로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교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쟁’이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를 결합할 수 있는 원리라고 강조한다. 보편적 가치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가치다. 예컨대,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진리, 인권과 주권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가치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치도 미리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편적 가치일지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리적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합의되지 않으면 하나의 폭력일 뿐입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사회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대학 출신들이 사회적 자아실현의 장에서 소외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것도 일종의 사회구조적 폭력이다.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문화가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이 소외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생주의적 정치 패러다임

이교수는 결국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가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문화의 생활화란 생산활동 역시,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것이며, 생활의 문화화란 우리가 자신의 삶까지도 창조 대상으로 생각해 타인의 삶과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에 기초한 문화민주주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담론'에서 이론의 자원을 끌어온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의사소통은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인정하는 관계를 전제하며, 이것은 또한 공동으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이것을 제거하면 할수록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와 연결됩니다."

이교수가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탐색하고 있는 것은 '공생주의(共生主義)적 정치 패러다임'이다. 이는 형식적인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이론이다.

"공생주의는 '생활형식의 공유'를 지향합니다. 다원성의 토대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극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주의를 결합시킨 정치이념이지요."

이교수는 현재 《탈유가적(脫儒家的) 공동체주의》(가제)를 구상중이다. 이 책에서 서양의 공동체주의와 유가의 전통사상을 현대적으로 접목해 공생주의를 좀더 정교하게 이론화할 계획이다.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이후 가다 들어온 그의 정치철학 이론을 완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철학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정치의 향방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교수는 사이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인터넷 문명은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토론됨으로써 답론 공간이 넓어지겠지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통제나 조작이 가능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1세기 철학의 화두는 개인의 정체성 위기

인터넷 공간에 대한 철학적 분석도 미미한 상태에서 사이버 민주주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21세기 정치철학의 의제로 이교수가 꼽는 것은 먼저 세계평화를 보장할 국제기구의 설립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시민 사회가 구축되고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비정부기구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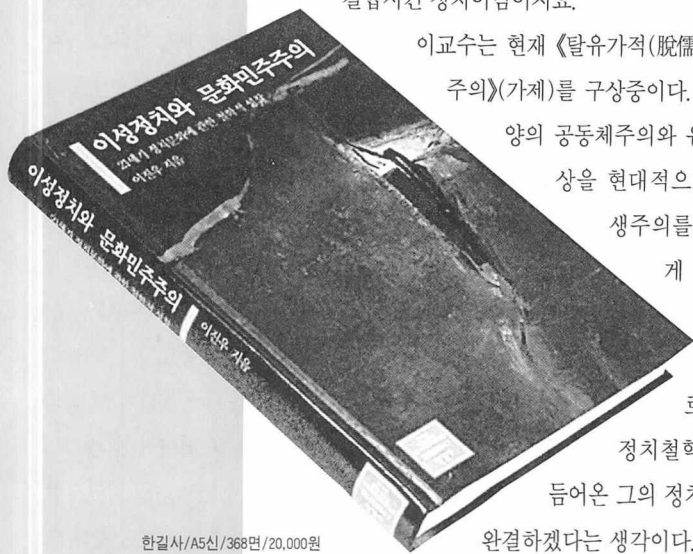
문화다원주의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 사무엘 헌팅턴이 예측한 것처럼 민족적·종교적 근본주의가 발흥함에 따라 문명의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상대주의 문화가 더욱 중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하나 개인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철학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20세기가 생존의 문제에 집착했다면 21세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의미의 문제가 대두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제거함에 따라 노동의 의미를 되물어야 합니다. '의미를 위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 이교수가 벌이고 있는 '의미를 위한 투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왜 정치철학에 매혹을 느끼는지 들어보면 알 듯하다. 그는 형이상학·미학 등 흔히 철학의 본령이라 일컫는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이 정치철학·사회철학 분야에서 왕성하게 발언하고 활약할 때쯤 미학과 형이상학에 몰두하겠다고 말한다.

"아직은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현상에 눈길이 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드라마틱하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러면 안되는데... 달리 될 수는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저는 철학합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철학자다. 그런데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적인 성실성'이 아닐까. 무엇이든 슬쩍 건드려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망치'로 현상의 각질을 깨고 그 본질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정신 말이다. - 대구·박춘홍 기자



한길사/A5신/368면/20,000원